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참 고</div>				 금융감독원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 6. 21.(목)	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 덕 기 사무관(02-2100-2835) 이 은 진 사무관(02-2100-2836)	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진 석(02-3145-8020)		김 부 곤 팀장(02-3145-8040)		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6770)		박 형 근 팀장(02-3145-6773)		

제 목 : 동아일보 6.21일자 「'저축銀 신용대출 10조' 왜 몰랐을까」 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동아일보는 6.21일자 「저축銀 신용대출 10조 왜 몰랐을까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원이라는 통계는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별도로 받은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.”
 - “뭉텅이식 통계만으로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기 힘들다. 제2금융권 내에서도 업권별로 대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” 라고 보도

< 참고 내용 >

- ☐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 금융회사형태(보험, 상호금융, 저축은행, 여전사 등), 대출유형별(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)로 구분하여 통계를 집계·관리하고 있음
- ☐ 다만, 그 동안 대외적으로 통계를 발표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별, 대출유형별 구분을 하지 않고,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중심으로 발표하여 왔음

- ☐ 따라서,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와 금융당국이 집계·관리하는 통계는 상이하며,
- 금융당국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보다 훨씬 세부적인 가계대출통계를 집계·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